

〈제 561호〉

-주간- **광주 경영계**

## 광주은행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천만원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3일 펼친 은행장배 '2019 광은리더스클럽 골프대회'에서 광은리더스클럽 회원들의 마음을 담은 성금 2천만원을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김홍균 광은리더스클럽 중앙회장, 김재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250여명의 광은리더스클럽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광은리더스클럽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모인 성금 2천만원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 금호타이어

### ◆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전대진)는 지난 20일 서울 한 중학교에서 올해 한국메세나협회 및 아컴(A.com)과 함께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예술로 하이킥'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진로체험 교육 '예술로 하이킥' 프로그램은 무용 및 시각예술 교육으로 구성돼 청소년들이 무용 예술 작품을 감상한 후 개별적으로 몸의 움직임

(무용 등) 및 미디어 등을 활용해 감정을 표현하며 능동적으로 문제의식을 해결하고 안정된 심리를 추구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 안무가, 연출가 등 예술적 직업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 남화토건

### ◆ 화순군립석봉미술관 개관 1주년 기념식 개최

남화토건 최상준 회장의 기부로 지난해 건립된 화순군립석봉미술관이 개관 1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남화토건 최상준 회장은 “화순군립석봉미술관이 화순군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미술관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으며, 최형열 화순부군수, 주민 등 관제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기획전 ‘국향을 품다’ 개막식도 함께 개최했다.



미술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화순군립석봉미술관 제1·2전시실에서 열리는 특별기획전 ‘국향을 품다’는 화순군 대표 축제인 ‘2019 화순 국화향연’과 연계한 전시회로 국화 작품 30여 점을 선보이며 오는 12월 31일까지 무료로 관람 할 수 있다.

## 보해양조

### ◆ 서경덕 교수와 독도 알리기 캠페인 나서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던 중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와 협업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독도 캠페인을 펼쳐게 됐다.

독도와 한국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서경덕 교수는 지역 주류기업 보해가 독도와 한국을 알리고 싶다는 취지로 독도 캠페인을 제안하자 흔쾌히 수락하고 문구와 디자인 제작에 함께 참여했다.



또한 보해양조는 독도 캠페인을 위해 회사를 대표하는 제품인 보해복분자주와 잎새주 등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알리는 문구와 디자인을 넣어서 생산하기로 했으며,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국내는 물론 미국과 필리핀 등 세계 곳곳으로 수출돼 한국과 독도를 알리게 된다.

## II. 광주경충 소식

### <영·호남 달빛동맹 노사 한마음대회>



본회 운영현 상임부회장은 지난 24일 전남 순천 일대에서 개최한 영·호남 달빛동맹 노사 한마음 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광주 노사정이 참석한 가운데 각 노사정 대표의 축하 인사말씀과 함께 공동 선언문 채택 및 퍼포먼스를 통해 영·호남 노사상생 협력의 화합과 신뢰를 다지고 양 지역의 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자고 결의했다.

### 사무국 일지(10. 21 ~ 10. 25)

10. 21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센터 직무역량강화교육 참석</li> <li>● 한국노총 광주본부 해외연수 참석</li> </ul>	10. 24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호남 달빛동맹 노사한마음대회 참석</li> <li>● 광주문화경제거버넌스 포럼 참석</li> </ul>
10. 22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빚고을 장학재단 이사회 참석</li> <li>● 석봉미술관 개관 1주년 기념식</li> </ul>	10. 25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64회 금요조찬포럼</li> <li>● 지산맛 일자리사업 최종평가</li> <li>● 청년고용업무 역량강화교육 참석</li> <li>● '20년 남구 생활임금 회의 참석</li> </ul>

### 〈제1464회 금요조찬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0월25일 오전 7시 신양파크호텔에서 김창경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를 초청 <디지털 경제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제1464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Digital Transformation이다. 데이터경제 시대에는 모든 비즈니스가 디지털이다. 디지털 데이터경제 사회가 본격화되면 부르기 전에 오는 택시, 쓰러지기 전에 찾아오는 의사, 시키기 전에 배달되는 피자, 줄서기 전에 주문되는 커피 등이 가능하다. 잘나가던 석유 금융 제조업이 꺾이고 데이터 기업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데이터는 플랫폼에 모이고, 플랫폼은 세계를 지배한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지금 미래자동차, 바이오, 차세대 반도체 등 우리나라가 역점을 둔 미래 신산업의 속성도 다 같은 데이터 비즈니스이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연결점 비즈니스다. 연결에서 창조가 나오며 경험을 사용해서 지식을 연결해야 한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 1. 노사 동향

### ■ 정부는 11월 중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가능성 시사 (10. 20)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0. 20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 시간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등 보완 입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제도기간 부여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 가능성 언급
  -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11월 초에는 국회의 보완 입법 처리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12월 이전에 정부가 검토 중인 보완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발언
- 양 노총은 정부 발표에 대해 반발하며 입장 발표 (10. 21)
  -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안 이외 법 개정이나 행정조치에 나서게 될 경우 사회적 대화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
  - 민주노총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계 우려만을 고려해 편법 마련과 시행 유보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
- 한편, 대통령은 10. 22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

### ■ 국회 환노위 2019년 국정감사 종료 (10. 21)

- 국회 환노위는 10. 21 고용부 종합국감을 끝으로 2019년 국정감사 완료
  - 고용부 종합국감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 방안, 근로자대표제 도입,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 됐으며, 산재와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된 기업 현안에 대해서도 질의
  - 환노위는 10월 末부터 2019년 고용부 예산 및 법안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



###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참고] 고용부 종합국감(10. 21)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li> <li>•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제도 개선 요구</li> <li>• 통신 업종 관련 일부 기업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 조사 요구</li> </ul>
자유한국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탄력근로, 선택근로, 인가연장근로 등) 마련 요구</li> <li>• 일자리의 질 감소, 소득양극화 심화 등 정부 정책 부작용 지적</li> </ul>
바른미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고용부의 미온적 태도 지적</li> <li>• 정부의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 문제 제기</li> </ul>
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마련 시, 근로자 건강 확보 방안 마련 요구</li> </ul>

#### ■ 노동계는 하반기 투쟁계획 수립

○ 한국노총은 '타임오프 현실화'를 하반기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확대를 위한 활동에 집중 방침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0. 23 울산지역 현장순회에서 "11월까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안에 타임오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13년에 개최된 바 있음.

- 한국노총은 사무국에 「근로시간면제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8. 27)했으며, 전국노동자대회(11. 16)에서 '타임오프 현실화' 등을 요구할 계획

※ 전국노동자대회는 조합원 3만명을 목표로 국회 앞 개최 예정

○ 민주노총은 10. 17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하반기 투쟁기조 및 주요 사업계획 논의

- 주요 투쟁기조는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계약 저지, ▲비정규직 철폐로 설정하고 하반기 투쟁에 전조직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

- 민주노총은 11. 9 전국노동자대회, 11. 30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하고 11월 末 ~ 12월 初 '사회적 총파업' 추진 계획

###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전국노동자대회(11. 9)는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을 중심으로 10만명을 목표로 조직화를 추진할 계획
- 민주노총 집행부는 10. 21부터 지방순회 등을 통해 '사회적 총파업' 조직화에 집중한다는 방침

#### ■ 경북대병원 노사 파견·용역 근로자 직접고용 합의 (10. 22)

- 경북대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0. 22 파견·용역 근로자 376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합의
  - 직접고용 대상은 청소, 주차, 시설관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며 '20. 3. 1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
- ※ 서울대병원은 9. 3 파견·용역 근로자 614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
- 한편, 경북대병원 정규직 노사는 ▲기본급 1.8% 인상, ▲환자 안전담당인원 176명 충원, ▲3급 급속 승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19년 임단협 타결(10. 22)



## 2. 판례 동향

원청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장비의 예방·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법률관계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중앙지법 2019. 9. 27. 선고, 2018나2062639 판결).

### 1. 사실관계

- 원청은 자동차 및 그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각종 시험용 차량을 제작하고 새로 고안·설계된 차량의 품질 및 성능을 시험·평가하는 A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 이 사건 근로자들은(21명) 협력업체 소속으로 A연구소에 있는 자동차 연구 개발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예방·점검 업무를 수행함.
  - 원청은 예방·점검이 필요한 연구개발장비를 선정해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장비별 표준작업시간표나 월 점검계획을 작성해 원청 담당팀에 송부함.
  - 이 과정에서 대상장비를 원청 사내 관리시스템(이하 'NEMS')에 등록하면 담당팀이 등록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일을 수행함.
-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파견근로자이고 원청이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함.
  - 1심에서는 원청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2. 판결요지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원청과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 ① 업무 내용 부분

### III. 노사 및 판례동향

- '도급업무세부목록'에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를 시험장비 분야별로 장비의 수, 분기별 작업건수를 규정하면서 점검 분야별로 세부 작업 내용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업무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계약에서 정한 작업건수 외에도 원청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신규 장비 점검, 이상 감지 및 필요에 따른 긴급 점검, 이미 점검한 장비의 재점검, 장비 수리 전후의 진동 측정 등의 업무를 하기도 했지만, 이는 계약과 무관한 업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신규 장비의 도입 등에 대비해 '협력업체와 원청이 협의한 작업'도 도급 작업의 범위에 포함하였으므로 이를 계약 외의 업무로 보기도 어려우며, 긴급 점검 등은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는 정도로 보여 원청 측의 일방적인 지시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상적인 업무로 보긴 어려움.
- A연구소에는 원청 소속 근로자들이 대부분 연구직 근로자이고,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가 연구직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작업량, 작업 내용 면에서 명확히 구별되어 연동될 여지가 없고 대체 가능성 또한 전혀 없음.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거나 업무를 대신 했다고 주장하나, 시험장비 점검에 따라 이상이 확인된 경우 업무 협조 차원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들의 정비업무를 일시적으로 돕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라 지원한 정도임.

#### ▲ 업무 수행 부분

-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는 대상 시험장비를 사용하는 각 시험팀의 업무 일정에 따라 수행되는 면이 있지만, 이는 시험장비가 있는 곳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시험장비를 운용하는 측에서 입회해야만 예방·점검을 할 수 있거나 가동 중인 시험장비를 대상으로 해서는 예방·점검을 할 수 없는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업무상 협력 관례로 볼 수 있음.
-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와 원청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청 소속 근로자들의 일정에 맞추어 시험장비가 있는 곳에서 업무를 한 사정만으로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혼재하여 분업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III. 노사 및 판례동향

- 원청은 예방점검표를 제공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에 따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대상 시험장비가 불량인 경우 조치 내용을 기재했으나 이는 원청 측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 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업무 수행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작업을 한 뒤 작업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시험장비의 담당자인 원청 직원의 확인을 받았는데 이는 예정대로 작업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한 정도임.
  - 원청이 개발한 NEMS는 A연구소 내 장비와 설비 등에 자산 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해 업무 이력을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등의 관리사이트일뿐임.
  - NEMS는 근로자별로 성과와 실적을 평가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예방점검표, 작업확인서에 따른 수기 작성 방식을 전산화하여 업무 수행 결과를 직접 입력하고 장비별 점검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 업무 수행의 대가 산정 부분
- 표준 T/O 와 장비별 M/H는 원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와 상의하여 정한 것으로 보임.
- ※ T/O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수, M/H : 시험장비별 시간당 투입 인원
- ※  $\text{도급단가} = \text{표준 T/O} \times \text{계약단가}$
- ※ 협력업체 근로자의 결근 등으로 미투입 M/H가 발생한 경우 월 예상 도급액에서 미투입 M/H에 미리 정해 둔 임률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지급
- 이 사건 예방·점검에 필요한 인원수가 표준 T/O로 사실상 제한되었더라도 표준 T/O는 예방·점검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증가했고 그 인원 내에서의 근로자 채용과 근로자별 작업 배치와 보직 변경은 협력업체가 스스로 하였음.

### III. 노사 및 판례동향

- 협력업체는 원청에게 주간업무보고나 월말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말은 업무의 이행여부와 그 결과를 정리한 것에 불과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퇴근 여부, 작업·휴게시간, 휴가 사용, 근무태도 점검 등의 근태관리는 협력업체에서 독자적으로 하였고, 원청이 근태관리를 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는 없음.

#### ▲ 그 밖의 사정들

-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는 단순한 업무 반복이 아니고 기술력과 전문성이 필요함.
- 원청은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에 필요한 공구와 장비 등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이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협조를 위해 제공한 것임.
- 협력업체는 원청 내부의 공간을 임차해 사무실을 두고 협력업체의 대표는 대부분 원청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이지만 협력업체는 업무에 따라 부서가 구분되고 부서별 관리자가 있는 등 자체적인 조직을 갖춘 것으로 보임.

### 3. 시사점

- 금번 판결은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인 편입 등을 고려해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2010다106436)의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임.
- 동 판결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사건(2016가합535581)과 같은 연구소에서 발생한 사건임.
- 이 사건 근로자들과 유사한 업무인 예방보전 업무를 수행했던 근로자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① '예방점검표 교부'를 원청의 지시수단으로 판단했고, ② '계약 외에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지시를 거절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을 들어 불법파견으로 판단한바 있음.
- 이 사건 근로자들은 동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으로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